

따스한 스승들이 넘쳐나는 대학이기를

부평동중학교 교감(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표혜영

지난 5월 EBS에서 제작한 스승의 날 특집에 배우 유준상과 그의 스승인 동국대 안민수 교수의 이야기가 나왔었다. 26년 배우생활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스승의 영향력을 행운이자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 제자 유준상과 진정성과 열정으로 가르치고 평생 지켜보아 주고 있는 스승 안민수 교수, 두 사람이 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인연을 보며 나는 강렬한 감동의 한편에 명치끝이 ‘통’하고 내려앉는 듯한 심적 통증을 느껴야 했다. 아이를 대학에 보내놓고 어미로서 겪어야 했던, 여전히 진행형인 나름의 아픈 내력 때문일 것이다.

대학생 딸아이의 어미이자 중학교 교사인 나는 원고 작성을 앞두고 여러 날 마음이 부대꼈다. ‘대학에 바란다’는 주제 아래 학부모로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쓸 자신이 없어서다.

지면에 표현된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에 바탕한 느낌, 정서, 생각들일 뿐 대학의 전체성이나 지향하는 본질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 믿는다. 그저 개별성으로서 읽혀졌으면 한다.

아이는 삼수 끝에 대학에 들어갔다. 한사코 말리는 부모를 설득하여 감행했던 삼수 기간 내내 삭발에 가까운 머리를 하고 등에는 무거운 책 배낭, 양팔엔 도시락 2개를 걸고 지옥철을 오가며 엄청난 집중력과 인내력을 보이던 끝에 들어가게 된 소위 ‘명문대’ 였기에 그저 감사했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탄할 것으로 생각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한 것은 몇 달 후. 본인이 선택한 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 괴로워하더니 이윽고 수업을 빠지기 시작하며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울증 환자와 다름없는 생활에 젖어들었다. 첫 학기 ‘성적 경고’ 를 받고 2학기 어느 날, 극도로 방황하는 아이를 견디다 못해 심한 언쟁 끝에 출근하는데 걸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어디 매달릴 곳이 없었다. 금방이라도 아이가 잘못될 것 같은 극단적인 불안감에 담당교수를 알아내어 다급하게 아이의 상황을 알렸다.

“우리 애랑 오늘을 넘기지 말고 꼭 상담 좀 해주세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늘 안으로 꼭 우리애를 불러 주세요.”

나는 몇 년이 흐른 지금도 그 때 그 교수님의 사무적이고 태연한 응답을 기억한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학부모의 통곡에 가까운 울음에 담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지 않았으려면 일주일을 넘기도록 아이에게선 그 누구와도 상담했다거나 하는 눈치가 보이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서야 문자가 왔다. “학생과 이야기해 보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가 전부였다. 같은 교육자로서 서운함을 넘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후 아이는 두 번 휴학했고 두 번째 복학을 하였다. 그 아찔한 터널을 우리 온 가족이 질척이며 가고 있는 수년 동안 나는 학교로부터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었다.

같은 교육자로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며 이해하고자 무던히 애썼다. ‘보직을 맡고 계신가보다. 그 업무가 몰리는 시기인가보다.’, ‘쓰고 있는 논문을 완성하느라 압박감이 크가보다...’

그러나 그 어떤 중차대한 일이라 해도 학생 사안보다 더 중차대하진 않다.

그 어떤 개인적인 급한 일이라 해도 학생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일이 우선이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단 한 명의 학생에게라도 ‘부적응’ 양상이 보이면 즉각 지역의 상담사를 연결하고 담임교사와 학년부장, 학생부장, 복지사가 한 학생을 에워싸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 집중 케어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필요 시 가정방문은 필수이다. 학교 현장의 이런 세밀한 노고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상당히 전략적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

고등학교를 이제 막 물리고 갓 들어간 대학이다. 아이들은 대학에서 계속 단단해져야 하고 길을 놓치지 않고 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한다.

대학에 바란다

이미 훌륭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이 많을 것이라 그래도 믿기에 사족이 될 수도 있을 말을 덧붙인다.

선배·동문들과 1:1 멘토링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여건이 허락되는 한에서 학생들의 정서 관리에 비중을 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아낌이 없으면 좋겠다.

배우 유준상은 인생의 중심을 잡아 준 큰 스승으로 꼽은 그를 ‘아버님’이라 불렀다.

그만한 스승을 갖는 행운이 유독 내 아이만을 비켜 갔으리라 생각진 않는다.